

전남 자영업자 4명 중 1명 '다중 채무'

한은, 코로나 확산기 자영업 대출 동향

전남 자영업자 4명 중 1명꼴은 여러 빚을 지고 있으며, 최근 이자율이 높은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취약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연 매출이 5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자영업자 대출 동향을 점검해 최근 발표한 자료들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역 자영업자 대출액(가계부채+사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광주 12.8%, 전남은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2021년 17.8%에서 다소 감소했지만, 전남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1년 14.5%에서 지난해 17.9%로 3.4%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역 가계부채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6.1%·전남 23.0%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수 50.6% 급증 '도 지역 평균의 3배'...비은행권 의존도 높아 영세하고 수익성 낮아...공적 신용보증 확대·통합지원체계 구축 시급

지역 취약차주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광주 17.0%·전남 31.7%로, 2019년 말(광주 14.5%·전남 21.5%)보다 상승했다. 취약차주는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이면서 다중 채무를 지닌 차주를 말한다.

특히 이 기간 전남 자영업 취약차주 수는 무려 50.6% 증가하며, 전남 취약차주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전남 자영업 취약차주 수 증가율은 도(道) 지역 평균 증가율 15.8%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 속에서 전남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전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금융권 의존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최근 3년간(2019년 말~2022년 6월 말) 비은행에급취급기관에서 전남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54.8% 증가했다.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예금은행 증가율

(30.9%)과 카드사 등 기타 금융(53.4%)을 웃돌았다.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대출 비중이 높았다.

전남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상호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남 자영업자 대출 중 상호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은 35.7%로, 전국 평균(18.2%)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자영업자 범주 안에 드는 개인사업자도 저축은행과 신탁 등 2금융권 채무를 버티고 있었다.

지난 2021년 2분기 기준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비중 25.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융기관 3곳 이상으로부터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개인사업자 4명 중 1명꼴(24.2%)로 있었다.

전남 자영업자들은 매출 규모는 영세하고 수익성도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남에서 연 매출이 5000만원 미만의 사업체는 전체의 30.9%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순소득은 1360만원으로, 경기를 빼고 소득이 가장 높은 제주(1510만원)와 150만원 차이가 났다.

전남 자영업자들의 경영 타격이 유독 큰 이유는 전통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와 연관이 있다.

전남 자영업자의 29.7%(2019년 기준)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종인 도·소매업에 종사했다. 이 비중은 경기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남 자영업자가 지역 취약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0.4%로, 전국 평균(23.5%)을 크게 웃돌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율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과자·빙과류·빵값 내달부터 인상

다음 달 과자, 아이스크림, 빵 등 먹거리 가격이 오른다. 롯데제과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과류 중 마카렛트는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고 초코빼빼로와 꼬깔콘은 각각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 가나초콜릿과 목캔디는 1000원에서 1200원이 된다.

자일리톨 용기제품의 경우 중량은 87g에서 100g으로 증가하고 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다.

빙과류 중 스쿠라바, 조스바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월드콘, 찹쌀아이스, 설레임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파리바게뜨도 다음 달 2일부터 95개 품목 가격을 평균 6.6% 올린다.

이에 따라 후레쉬스틱(대)은 32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치즈소시지패스트류는 2800원에서 2900원, 고구마반스크림케이크는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이 된다.

농심켈로그도 다음 달부터 콘푸로스트, 체크초코 등 시리얼 제품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린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오전 9시~오후 4시

30일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은행과 주요 시중은행, 저축은행들이 영업시간을 회복한다. 1시간 단축 영업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광주은행을 포함한 비수도권 은행들은 지난 2021년 7월27일부터 '오전 9시 반 개점·오후 3시 반 폐점'을 하며 기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보다 한 시간 줄여 영업해왔다.

예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끝나는 시점(2021년 8월6일)까지 단축 영업시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시간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각 은행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여전히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때 가져본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래 전략산업 금융지원 강화

한은 광주전남본부 3월2일부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3월2일부터 광주·전남도가 육성하고 있는 미래산업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준을 일부 변경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부문 및 의료·바이오 헬스, 차세대 배터리(이차전지)산업이 전략산업 부문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에 지원 중인 자동차, 반도체, 소재부품, 광산업, 금형,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부문은 유지한다.

전략지원 부문의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범위를 전략산업 영위 기업으로 한정한다. 기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업종제

한 없이 지원 대상에 들었다. 농수산 관련 기업 지원대상도 정비한다.

전략지원 대상 농림축산업자 및 농어업법인을 '농업, 임업 및 어업' 영위 업체로 한정하고, 도소매 등 농림수산업의 기타 업종을 영위하는 농림축산업자 등을 전략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략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은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에 추가된다.

한은 측은 "이번 운용기준 변경을 통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지자체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선도산업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외에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전략지원 부문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병들 노고 감사합니다. 광주은행 고병일(오른쪽) 은행장이 최근 지역 항도부대인 제31보병사단(사단장 오병석)을 찾아 군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1000만원의 위문금을 전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연 3.25~4%대 초중반 고정금리 최대 5억...DSR 규제 예외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고정금리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전성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멤)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 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우선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연합뉴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개척할 중기 찾아요"

전남도, 내달 2일까지 모집...3월 20~25일 현지 기업과 상담

로또복권 (제1052회)		2등 보너스숫자						
당첨번호	5	17	26	27	35	38	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41,682,762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39,750,788	108
3	5개 숫자일치						1,467,220	2,926
4	4개 숫자일치						50,000	148,178
5	3개 숫자일치						5,000	2,405,830

전남도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도내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을 참고해 오는 2월 2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증명서류를 전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 중 현지 바이어 발굴 가능성, 해외 시장 진출 준비도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해 15개 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중간에 위치해 서남아시아를 잇는 해상교역

의 요충지다. 다인종·다문화로 이뤄진 국가로 동남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시험 무대로 적합하다.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에 달하는 중소득 국가로 아세안 역내 국가 중 중산층이 가장 많아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 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인접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시험대이자 '할랄 허브'로 도약을 꿈꾸는 중동 등 무슬림 시장 진출의 관문이기도 하다. 이번 수출 상담은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시장개척 참가기업이 직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현지 수입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상담 전에 구매력과 재무상태가 건전한 수입기업을 발굴해 3회에 걸쳐 참가 기업의 검증을 받아 상담을 우선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시 절약 모드'로 에너지 아껴요. 삼성전자 모델들이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제품의 탈취 강화 모델은 기존 대비 약 2배 빠르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고, '시 절약 모드'로 사용량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 제공>